

# 집값 폭등에 日규제까지...경제학자가 뽑은 10대 뉴스

## 전문가 9명 중 8명 미중 무역갈등 최대 이슈

## 성장률 하락에 이어 타다 논란, DLF 사태 등

2019년 한국 경제는 심화된 미·중 무역갈등에 수출이 큰 타격을 받고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다. 연초 촉발된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일 양국의 갈등으로 번져 국내에서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부동산 문제와 타다 갈등, 디플레이션 논란, 앞당겨진 인구감소 등이 올 한해 한국 경제에 큰 이슈가 됐다. 경제학자 9인이 뽑은 2019년 경제뉴스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를 되돌아봤다.



◇미중 무역갈등

올 한 해 한국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미중 무역갈등이다. 지난해 미국이 중국산 250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이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악화일로로 치달던 미중 무역갈등은 올초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을 진행하며 갈등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터널 직전까지 갔던 협상

은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수입품에 부과했던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선언하며 사실상 결렬됐다. 미중 무역협상 결렬로 세계경제는 일제히 타격을 받았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요동쳤으며 우리 수출도 급감하며 충격이 전해졌다. 다만 계속됐던 미중 무역갈등은 연말 양국이 1차 무역합의에 나서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다.



◇정부의 잇따른 규제에도 치솟는 집값

부동산 이슈는 올해도 계속됐다. 정부는 투기세력을 근절하고 치솟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잇따라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으나 부작용만 속출한 채 집값 잡기에 실패했다. 지난해 9·13대책 이후 안정세를 보였던 부동산 시장은 분양가상한제 발표 이후 요동쳤다.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에 투기세력의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집값이 뒀 것이다. 서울지역 집값

의 경우 25주째 상승이 이어지는 등 부동산시장 출렁였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집값 안정화에 총력을 내었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 16일 분양가상한제를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고가아파트 대출규제라는 보다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일본 수출규제와 불매운동

일본이 올 7월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소재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서면서 한일 양국간 갈등이 촉발됐다. 일본 정부는 7월4일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 운용 관리 정책을 수정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리지스트 등 반도체와 TV·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시행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경제보복이라며 세계 무역기구(WTO) 제소에 나서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국내에서는 민간 차원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타다 vs 택시업계 갈등 신모빌리티 서비스산업으로 불

리는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타다 퇴출을 외치는 택시업계의 반대는 심화됐으며 국회에서는 타다 금지법이 추진됐다. 이재웅 쓰카 대표는 '정부 부가 신산업을 규제하고 있다'며 정부 당국자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타다 갈등은 법적다툼으로 번진 상태다.

◇12개월 연속 수출감소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반도체 부진과 함께 대외리스크의 영향으로 올 6월부터는 두자릿수 감소를 기록 중이다. 반도체 수출은 11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30.8% 감소했다. 연중 계속된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교역이 둔화된 데 따른 것이다. 올 7월 일본 수출규제도 우리 수출전선의 북병으로 떠올랐다. 한국 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수출이 부진을 겪으면서 우리 경제도 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다.

◇3500억원 손실 낳은 DLF 사태

국내 은행이 판매한 독일 파생결합증권(DLF)은 3500억원의 예상손실을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25일 기준 DLF 잔액은 6723억원이며 이중 5784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했고 예상손실액은 3513억원(52.3%)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최대 100% 개인 손실을 낳은

DLF는 설계부터 판매까지 논란을 낳았다. 일부 은행의 경우 치매환자에게 DLF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불완전판매 논란을 낳았다. 금융당국은 최대 80% 배상 비율을 책정했으나 투자 피해자들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반발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선 상태다.

◇역대 최저 기준금리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로 내려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0월16일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p) 낮췄다. 7월에 이어 추가 인하다. 지난 2016년 6월~2017년 11월 유지됐던 역대 최저치(1.25%)를 다시 찍었다. 한국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에 나선 것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에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전분기 대비 GDP 대비 성장률이 0.4% 하락하며 역성장을 기록했다. 2017년 4분기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다.

◇경제성장률 2% 추락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로 떨어졌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0.8%를 기록한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다. 당초 정부가 예상한 2.4~2.5%(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준)보다도 최대 0.5%p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2.7%에 이어 올해 2%대 초반으로 성장률이 추락하면서 우리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여기에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

면서 성장동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0%대 저물가에 디플레이션 선 논란

0%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계속되면서 '디플레이션' 공포가 찾아왔다. 소비자물가는 올 1월 0.8%를 기록한 이후 11개월째 0%대를 유지하고 있다. 9월에는 소비자물가가 0.4% 하락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다. 여기에 근원물가도 최근 4개월 연속 0%대를 유지하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계속된 경기부진에 따른 소비침체로 물가가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농산물 가격 하락이라는 공급적 요인과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물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한 것이라 밝혔다.

◇앞당겨진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로 우리나라 인구감소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17년 기준 5136만명(중위추계 기준)에서 꾸준히 증가한 뒤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2029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당초 지난 2016년 발표된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 때보다 인구감소 시기가 3년 앞당겨진 것이다. 최근 47개월 연속 출생아 수 감소가 계속되면서 인구감소 시기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 내일부터 통신요금 등 카드 자동납부 목록 한번에 본다

30일부터 PC와 모바일 앱을 통해 8개 카드사에 등록된 아파트 관리비, 통신요금 등 카드 자동납부 명세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또 지급받지 못한 상호금융조합 출자금·배당금을 본인계좌로 받거나 기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카드 자동납부 통합조회 서비스와 상호금

융조합 출자금·배당금의 본인계좌 이체(또는 기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카드를 이용한 통신요금, 4대보험, 전기요금, 아파트관리비 등 자동결제·납부 서비스 이용이 확산하고 있지만 기존에는 여러 카드의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없었다. 전체 자동납부 중 카드 자동납부

비중은 지난 2017년 말 22.5%에서 지난해 말 26.2%로 늘었다. 30일부터는 PC는 페이인포(www.payinfo.or.kr), 모바일 앱은 아카운트인포에서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카드 자동납부 명세(카드번호·상품명, 가맹점명, 납부자번호, 요금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8개 카드사(국민·롯데·

삼성· 신한·우리·하나·현대·BC)에 대해 통합 조회를 할 수 있고, 대상 가맹점은 통신3사(SKT·KT·LGU+), 4대보험, 한국전력(전기요금), 아파트관리비, 스쿨뱅킹, 임대료(LH·SH 등) 등이다. 금융위는 내년 12월까지 카드업 경영은행(NH농협·씨티·제주·전북·광주·수협)과 도시가스·보험사, PG가맹점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9	13	28	31	39	41	+	19
순위	당첨개입수	1인당 당첨금액	당첨기준				
1등	7	3,082,673,947원	당첨번호 6개 숫자 일치				
2등	77	46,707,182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보너스 숫자 일치				
3등	2,443	1,472,147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4등	112,132	50,000원	당첨번호 4개 숫자 일치				
5등	1,998,623	5,000원	당첨번호 3개 숫자 일치				

당첨금 지급기일: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유인인 경우 익명당첨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